

구례군, 달팽이 체험장 '르에스카르고502' 준공

마을주민들 출자 설립 (주)콤파마을사람들 달팽이 사육시설·체험시설 등 갖춰

구례군은 문척면 화양마을에 달팽이 체험시설인 '르에스카르고 502' 체험장이 건립되어 지난 20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문척면 화양마을 주민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콤파마을사람들(대표 박영남, 최정호)에서 3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르에스카르고502는 달팽이 사육시설과 체험시설 등을 갖췄다.

준공식은 김순호 구례군수, 김송식 구례군의회 의장, 자연드림치유힐링생협연합회 이선경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제1회 문척 수박&달팽이 홍보행사, 갤러리 최 8번째 전시회, 달팽이 요리 시식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열렸다. 농업회사법인 (주)콤파마을사람들 박영남 대표는 "달팽이는 미용, 건강, 음식으로도 인기가 많다"며, "달팽이 건강증 판매뿐 아니라 체험객을 위한 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사육을 원하는 농가에도 분양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서도 오산 명소화 사업 등을 통해 오산권역을 관광의 한 축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구례 문척 수박&달팽이 홍보행사는 오는 28일까지 구례군 문척면 화양마을에서 르에스카르고502 체험장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관광택시, '반값' 이벤트 진행

10월 31일까지 이용료 6만원 중 3만원 지역상품권 돌려줘

곡성군이 10월 31일까지 곡성관광택시 반값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힐링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에 곡성관광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은 곡성심청상품권 3만원을 즉시 받을 수 있다. 관광택시 요금에 3시간당 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요금의 반값을 돌려받는 셈이다.

곡성심청상품권은 곡성 지역 내 500여개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광택시 고객은 각종 체험상품과 숙박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곡성관광택시는 곡성군과 곡성관광택시 연합회에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여행 운송 서비스다. 10명의 기사는 문화, 체험 등 지역에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손님에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비롯해 숨어 있는 명소까지 구석구석 여행하기에 좋다. 특히 코로나19로 단체여행이나 다중이용시설을 꺼리고, 언택트(비접촉) 여행이 각광 받으면서 여행자들에게 적절한 대안이 되고 있다.

관광택시 측도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손잡이 항균 필름 부착 등 철저한 방역 속에 손님을 맞고 있다. 고병무 곡성관광택시 연합회장은 "당신만을 위한 맞춤 가이드와 함께 여유롭고 한적한 여행으로 일상속의 소소한 행복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및 예약은 1522-9053으로 전화하면 된다.

곡성=김광휘 기자

화순군, '수산물 거점' 조성...지역 경제 활력 기대

해당 부지 양돈농장 약취 민원도 해결 '일석이조'



화순군에 내수면 어업과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단지가 조성된다. 화순군은 능주면 정남리와 남정리 일대에 내수면 양식단지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한창이다.

군은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수출에 특화된 가공 시설을 운영해 전라남도 유일의 수산물 유통을 활용한 '소스 전문 수산식품 거점'을 만든다. 사업 초기에는 액젓, 맛 간장, 굴 소스, 해조류 장아찌 등 일반적인 '액상형 소스' 생산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지 연구 시설에서 연구·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 사업 다각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 7월 완료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사업비 70억(국비 35억·군비 35억)을 투입해 용수 공급 시설, 판매 시설, 양식장 등 3만 3500㎡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 중 2만㎡를 내수면 어업인에게 분양해 메기, 새우, 뱀장어 등 토

중 어류 양식어업을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다진다. 양식단지와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 올랐던 것은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 5년여 만이다. 장흥·보성과 연결된 국도29호선에 인접해 있는 능주 양돈단지 등 약취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고심하던 화순군에 양식단지와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공모사업이 민원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화순군은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해 약취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수산식품 거점을 조성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구중근 화순군수는 "수산식품 거점단지와 양식단지를 조성해 내수면 어업과 수산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주민 소득원을 창출하겠다"며 "편리한 수송망과 소비자 접근성 등 이점을 살리고 능주와 인근 지역에 산재한 문화관광·역사 문화 자원을 거점단지와 연계해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 새로운 6차 산업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나주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목표로 △지방예산의 이해 △참여예산 제안서 작성 △예산편성 흐름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한다.

올해 예산학교는 20개 읍·면·동을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유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모임대표 오민조 강사를 비롯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초빙해 활동경험과 타 지역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이 나아갈 방향을 시민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및 각종 정책지원에 따른 시 재정현황과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지난 19일 봉황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세지·봉황·다도면 주민들을 시작으로 △노안·성북·금남·송월(23일 오후 2시, 송월동) △영강·영산·이창(25일 오전 10시, 이창동) △문평·다시(26일 오후 2시, 문평면) △왕곡·공산·반남·동강(29일 오후 2시, 공산면) △남평·금천·산포·빛가람(30일 오후 1시, 산포면 복지회관) 순으로 열린다.

시는 매 교육 시 철저한 방역체제, 손소독, 마스크 착용, 교육생간 거리두기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당부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관 주도의 예산 편성과 운용에서 벗어나 시민이 제창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갈 것"이라며 "이번 예산학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시 재정현황에 대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와 협력을 모아 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은 오는 7월 15일까지 시민 누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과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범한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